

Online Series

2018. 07. 17. | CO 18-31

김정은의 평안북도 기업 현지지도의 의미: '대안사업체계' 무력화와 '자립적 현대화'

박 영 자 (북한연구실장)

최근 평안북도 1급 기업 3곳에 대한 김정은 현지지도의 목적은 중앙직할 국영기업의 '자립적 현대화'다. 성공모델인 신의주화학공장 지도 시 김정은의 행보로 최근 북한 기업 정책 특징을 살펴보면, 사상우선 지속생산공정과 생산현장의 현대화기업운영과 생산의 정보화과학화, 그리고 생산의 창의성이다. 이어 김정은이 제시한 향후 북한 기업의 발전 전략은, 첫째,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품의 질 제고 및 변화하는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생산이다. 둘째, 제품 가치판매 증대를 위한 마케팅과 판매망 확대이다. 셋째, 과학기술발전의 자립경제·경제강국을 향한 제품의 표준화·규격화, 생산설비와 기술 발전, 국산화 등이다. 한편, 개혁지체 모델로 평가된 신의주 방직공장 화학섬유공장의 문제점은, 첫째, 국가경제 정책 변화에 따른 중앙기업의 굴곡이다. 둘째, 생산요소 부족 및 생산연계성 문제이다. 셋째, '대안 사업체계'의 무력화 및 공장 간부들의 활동 동력 부족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김정은은 기업이 기존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자체 수입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노력 및 능력을 배양하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각 공장의 실태에 따른 실리적 해법을 제시한다.

지난 6월 29일~7월 1일 간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단둥시와 인접한 평안북도 신도군(6.29) 및 신의주화학공장(6.30)·신의주방직공장(7.1)·신의주화학섬유공장(7.1)을 현지지도하였다. 특히 각 공장 내 기관·생산현장을 살펴보고 기업 운영에 대한 구체적 평가와 과업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금번 김정은 현지지도의 의도와 목적을 살펴보고 3개 기업 현장방문 시 김정은의 평가와 과업을 중심으로 최근 북한 국영기업 실태와 이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응을 분석한다.

최고지도자의 경제드라이브

금번 현지도 목적에 대해 국내외 언론은 크게 2가지를 주목하였다. 하나는 항만 등 개방 인프라 점검을 포함한 북중경협 본격화 준비이다. 평안북도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신의주국제경제지대, 압록강 경제개발구, 위원공업개발구 등 북한의 개방정책이 집약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상반기 외교행보로 소홀했던 민생시찰 및 간부 기강 잡기라는 평가이다. 화장품섬유 등 인민소비품 공장에 대한 현지도라는 점, 그리고 화장품 공장에서의 과한 칭찬/격려와 방직·화학섬유공장에서의 질책/비판이 대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현지도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북한 기업정책의 방향이다. 김일성 시대 전형화된 북한 최고지도자의 기업 현장지도는 단순한 민생행보가 아니다. 국가정책적으로 시급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 및 ‘모델 창출’ 의미가 있다. 2018년 현재까지 북한의 공식 기업관리체도로 공장기업소 내 공장당위원회 지도를 제도화한 ‘대안의 사업체계’ 역시 1961년 12월 김일성의 남포시 대안구역 대안전기공장 현지도를 통해 창출되었다.

기업의 자립적 현대화 추진

북중경협·개방 준비라는 의미 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금번 김정은 현지도의 목적은 중앙직할 국영기업의 ‘자립적 현대화’다. 신의주화학공장·신의주방직공장·신의주화학섬유공장은 모두 종업원 3,500여 명 규모의 중앙직할 1급 기업소이다. 북한의 중앙직할 기업은 특급·1급·2급·3급 기업소로 종업원 500여 명 이상 규모이다. 한편 4급 이하는 지방기업으로 김정은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 따라 개인투자 허용 및 지역·관리주체별 자율성이 증대된 중소기업이다.

최근 북한의 경제난·시장화에 따른 ‘기업 자립과 운영 자율권’이 중앙기업으로 확대되었다. 대개 연합기업소 형태로 운영되는 종업원 5,000명 이상 특급기업소는 국가 기간산업이거나 중앙당·군대 등 특수기관이 관리하기에 계획경제제도가 상대적으로 잘 작동하는 편이다. 그러나 특수기관 소속이나 특산품 생산공장이 아닌 2급·3급 기업소들(종업원 500~1,000명 규모)의 경우, 중앙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독립채산제’에 기초한 지방기업으로 변했다. 즉, 생산품목·생산계획에 대한 중앙지시 없이 기업이 자력운영하고, 수익금 중 20~30%를 토지·시설 이용료 명목으로 중앙기관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2016년 제7차 당대회시 제시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의 성과를 구현할 수 있는 단위는 1급 기업소이다. 그러므로 금번 김정은의 신의주시 1급 기업소 지도는 북한 기업의 ‘자립적 현대화 드라이브’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불어 김일성이 비단섬이라고 명명한 신도군은 북한산 화학섬유원료로 쓰이는 갈대 생산 지역이다. 즉, 북한의 ‘생산원료 국산화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다. 이로 인해 김정은은 금번 현지도 시 신도군이 ‘갈(갈대)재배를 과학화·현대화’하여 “주체적인 화학섬유원료기지”로 거듭날 것과 함께 화학공업 자립의 북한 전역 “본보기단위”로 세우라는 과업을 제시했다.

김정은 시대 기업정책 및 생산관리 성공모델

김정은이 “만족에 대만족이라고 높이 평가”한 신의주화장품공장은 ‘봄향기’ 화장품으로 유명하며 생활필수품인 비누, 치약, 미용용품을 생산한다. 그런데 북한의 기업은 단순한 생산기관이 아니다. 행정기관이자 사상교육기관이며 재생산 공간이다. 따라서 생산시설 외에 <혁명사적 교양실>, 탁아소·유치원, 병원, 노동자문화회관 등을 갖추고 있다. 이 공장에 대한 김정은의 행보와 발언을 통해 최근 북한이 구현하려는 기업과 생산관리 정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사상우선 지속이다. 김정은은 공장의 <혁명사적 교양실>을 가장 먼저 둘러보며, 특히 김일성의 공장 현지도의 위대성을 논하였다. 이어 선대 최고지도자의 업적을 새기며 ‘세계 수준의 화장품’을 생산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공장지도의 최우선 과제가 여전히 사상 강화에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생산공정 및 생산현장의 현대화이다. 이 공장의 성과와 업적에 대해 김정은은 생산의 자동화와 함께 생산현장 위생을 위한 무균화·무진화를 높게 평가한다. 그리고 국제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 현대화를 강조한다. 이제 북한도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생산제품의 질 제고’에 주력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또한 화학공업 발전을 위해 생산과 작업 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행보이다.

셋째, 기업운영과 생산의 정보화·과학화이다. 김정은은 이 공장의 ‘통합생산체계 구축’을 높게 평가하였다. 소위 ‘첨단돌파전’ 정책에 따라 “생산지휘 및 기술공정 관리, 경영관리를 정보화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통합생산체계를 잘 구축했다는 것이다. 또한 원료배합부터 제품완성까지 전체 생산과정에 무인화와 자동화를 실현하였다는

평가이다. 이는 북한도 기업관리의 정보화 및 고급기술 도입을 본격화 할 것임을 전망하게 한다. 또한 노동력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생산시설 개발·강화 구상도 보인다.

넷째, 생산의 창의성이다. 김정은은 이 공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제품용기의 다양화를 이루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 이는 대중의 소비욕구를 고려하여 경쟁력 있는 판매 전략을 구현하려는 기업전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많은 설비들을 공장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이 자체의 힘으로 설계제작하거나 도안의 기계공장들에서 만들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는 기업자립을 위한 공장 기술자들의 창의고안 및 지역 내 기업 간 연계협력의 중요성을 부각한 것이다.

국산화 실현을 위한 기업 전략

이러한 평가와 함께 김정은은 향후 이 기업의 발전 과업을 지시한다. 핵심 기초는 과학기술 발전과 연계된 선진국 수준의 제품생산 및 자립경제를 위한 국산화 등이다. 이 공장 현지지도 과정에서 김정은이 제시한 3대 과업을 살펴보자.

첫째,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산품의 질제고 및 변화하는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제품 생산이다. 이를 위해 먼저 평양에서 생산하는 북한 대표 화장품을 비롯한 세계 유명 화장품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제품의 질 제고를 지시한다. 다음으로 수요자의 기호와 연령, 체질별 특성에 맞게 제품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라고 지시한다. 이와 함께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체계 준수를 강조한다.

둘째, 제품의 가치와 판매 증대를 위한 마케팅 및 판매망 확대이다. 김정은은 화장품의 가치를 높이는 데는 용기도 중요하며, 제품의 특성과 편리성 뿐 아니라 선물용이나 기념품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다양한 포장형식을 지시한다. 시장경제에서 중요한 마케팅 전략을 중시하는 태도이다. 또한 평양시내에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생산하는 화장품 판매 전문상점 건설 등을 제시하며 기업의 능동적인 판매전략 및 판매망 확대를 지시한다.

셋째, 과학기술발전에 기초한 자립경제·경제강국을 향한 과업이다. 제품의 표준화규격화, 생산과 개발의 설비기술 발전, 국산화 등이다. 세부적으로 대량생산을 위한 생산공정의 자동화, 노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 제고, 공장 내 과학연구와 생산이 일체화된 기술집약형 공장으로서의 발전, 원료의 수입의존도 저하와 국산화 비중 증대, 제품 다양화 등이다.

지체되는 기업개혁

신의주화장품공장과 달리 현재까지 북한지역 대부분의 국영기업은 생산과 운영의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 실태를 금번 현지도 시 김정은이 호되게 비판하였다는 신의주 방직공장과 화학섬유공장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신의주방직공장(다양한 섬유 생산)의 생산 원자재인 인견스프를 조달하는 기업이 신의주화학섬유공장(펄프, 종이, 화학섬유 생산)이다. 따라서 이 두 기업은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 이 화학섬유공장의 국산 원자재인 갈대를 조달하는 지역이 신도군이다.

첫째, 국가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중앙기업의 굴곡이다. 1980년대 특급 연합기업소였던 신의주화학섬유연합기업소는 코메콘 붕괴 이후 원료와 전력 조달의 어려움으로 1994년 1급 기업인 신의주화학섬유공장으로 격하되었다. 그러다 1996년 이후 경공업중시정책에 따라 다시 연합기업소로 개편되었다가 2006년 경 또 다시 1급 공장으로 축소된다. 신의주 화학섬유공장의 생산 차질로 사실상 활동을 중지했던 신의주방직공장 또한 90년대 중반 중앙의 ‘기술혁명소조 돌격대’ 파견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그러나 돌격대가 떠난 후 원료와 기술, 전력 부족으로 난황을 겪었다. 2006년 신규 공정(실이 끊어질 때 자동으로 실공급을 차단하는 자동정지 장치) 설치 및 2010년 편직사직장 준공이 이루어졌으나 그 성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둘째, 생산요소 부족 및 생산연계성 문제이다. 관련하여 김정은은 방직공장 성원들이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을 정상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재와 자금, 로력 타발”만 하고, “난관앞에 주저앉아 일떠설 생각을 하지 못하고 동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원료 공급처인 화학섬유공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불안정한 수력·화력에 의존하는 전력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산의 정상화는 쉽지 않다. 또한 1급 기업소임에도 배급불안정이 지속되다가 ‘기업능력에 따른 자체 배급정책’이 하달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이 개선되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대안 사업체계’의 무력화

셋째, 기업관리제도의 혼돈과 형식적 대응이다. 북한 기업관리제도의 원형인 ‘대안의 사업체계’는 기업 내 사상사업을 지도하는 당위원장-행정을 책임지는 지배인-기술을 관장하는 기사장이란 3대 행위자의 견제와 균형 모델이다. 그런데 이 사업체계는 식량배급

등 공장 성원들의 후생제도 작동을 전제로 한다. 공장의 생산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거나 간부들이 각종 능력을 발휘하여 노동자들의 생존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안 사업체계는 아래로부터 무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직할 1급 기업소는 기업운영의 자율성 제약과 관료화 수준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상부기관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마구잡이식 사업”이 이루어지고 구성원들이 “애써 노력하지 않는” 현상이 팽배하다.

넷째, 생산 불안정 지속과 간부들의 활동동력 부재이다. 1990년대 이래 중앙의 기업정책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굴곡을 경험하였으며, 생산요소 불안정 등으로 생산이 정상화되지 않는 중앙기업 관련 간부들은 관료주의 및 책임전가에 익숙해 있다. 관련하여 김정은은 신의주 섬유화학공장에서 국가 기업정책 수행 상황에 대해 “지배인, 당위원장, 기사장이 서로 밀어내기를 하면서 누구 하나 정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상부 기관인 내각과 화학공업성, 그리고 도당위원회 간부들은 이 상황을 알면서도 지도통제를 방임하는 상태라고 비판한다. 이 방직공장과 화학섬유공장이 정상가동되지 않는 주원인은 생산의 필수요소인 원료와 전력 부족이다. 따라서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산 정상화는 요원하며 간부들이 동력을 가지고 활동하긴 어렵다.

김정은의 실리주의 해법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김정은은 다음과 같은 과업을 제시한다. 첫째, ‘공장당위원회’의 지도능력을 지적하며 기업 내 당조직이 앞장서서 노동자와 기술자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라는 지시이다. 둘째, 생산공정의 노력절약형·기술집약형 구조로의 전환이다. 이는 생산의 자동화 및 대량화 정책과 연계된다. 셋째, 기업운영의 실리주의 강조이다. 즉, 기존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기업이 자체적인 수입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노력과 능력배양 요구이다.

주목할 점으로 이러한 지도방향과 함께 김정은은 두 공장에 차별적 해법을 제시한다. 신의주방직공장의 경우, 2019년 창립 60돌을 목표로 한 생산환경 개선 및 노동자합숙소 건축에 건설노동력 지원을 조치하였다. 신의주화학섬유공장의 경우, 섬유보다는 원료 국산화가 용이한 종이에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즉, 신도군에서 생산하는 갈대를 기본원료로 종이 생산에 매진하라는 지시이다. 각 공장의 상황에 따른 실리적 해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KINU 2018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